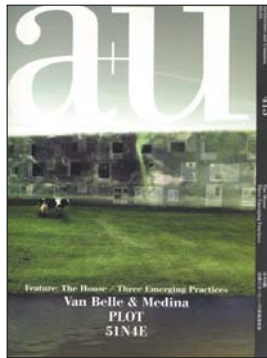


atu

2005년 4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최근 주택 작품을 소개한 'The House'와 30대의 유럽 신진 건축사들을 소개한 'Three



Emerging Practices'로 구성되었다. 특집의 비중은 후자에 더 무게를 실었으며, 반 벨 & 메디나, PLOT, 51N4E 등 3팀의 건축 사무소가 소개되었다. 이들의 사무소 결성 경위와 건축 철학, 작업의 방법 및 앞으로의 전망 등이 인터뷰되었고, 프로필과 대표작들이 소개되었다.

30대의 유럽 신진 건축사들 -
Three Emerging Practices

반 벨 & 메디나(Van Belle & Medina)

벨기에의 안트워프와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거점으로 2004년에 결성된 반 벨 & 메디나는 쿠르트 반 벨(Kurt Van Belle, 벨기에)과 패트리샤 메디나 프리에토(Patricia Medina Prieto, 스페인)는 유럽의 서로 다른 사무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국제적인 상인 '유로판7(Europan7)'을 획득한 후 안트워프에서 지금의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두 사람은 모든 프로젝트에 언제나 함께 참여하고, 때에 따라선 다른 건축사와 도시계획가, 예술가 등과 협업을



Suburban Metamorphosis



Suburban Metamorphosis

하고 있다. 이들은 그들의 건축철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자신들은 기존의 이론에 기대지 않고 끊임없는 리서치를 통해 사유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건축을 도시의 일부로 보고, 그 과정에 편견이나 선입관 없이 관찰하는 것이 그들의 건축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세대가 앞선 세대에 비하여 건축사라는 직업의 독립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는 이들은, 변화해가는 환경의 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과거의 재현이 아닌 현실에 대한 탐구를 통해 과거로부터의 탈피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의 대표작인 'Suburban Metamorphosis' 계획에는 건물을 도시적 맥락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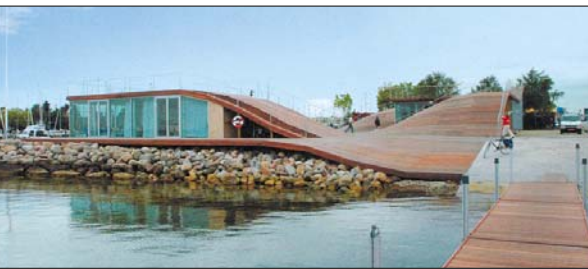
PLOT

줄리앙 드 스메드(Julien De Smedt)와 바르케 인겔스(Bjarke Ingels)에 의해 2001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설립된 사무소이다. 2004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스타반겔 콘서트홀'이 콘서트홀 부문의 금사자賞을 수상했으며, '해변의 유스하우스'가 2004년 미스 반 데 로에 賞에 노미네이트되는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고 있다. 위의 두 작품을 통해 보면 이들은 분명 건축을 통해 새로운 랜드스케이프를 만드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User strip chart / 使用法表

해변의 유스하우스



해변의 유스하우스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랜드스케이프를 건축과 일체화 시킨 형태에의 집착은 아닌 듯이 보인다. 그들이 바라보는 건축이라는 행위는 인간이 자신 주변의 환경을 계획하고 창조해가는 인간의 적응력이다. 건축사는 이와 같은 행위를 도와주는 산파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는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소의 잠재적 힘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발견하여 실현시키는 것이 건축사의 역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간활동을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끌어 올리는 데 주목한다. '해변의 유스하우스'에 나타난 연속된 지붕면은 그 곳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담을 수 있는 場을 만들고자했던 시도였다는 점에서도 그들의 철학이 드러난다.

51N4E

브뤼셀을 거점으로 요한 안리스(Johan Anrys), 프리크 페르세인(Freek Persyn), 페테르 스윈넨(Peter Swinnen) 3사람이 1998년 결성한 사무소이다. 브뤼셀의 세인트 루카스 대학 출신들이 이들은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자신들의 사무소를 차리는 것이었다고 말한



LAMOT 문화컨벤션센터

다. 사무소명인 51N4E는 바로 브뤼셀의 좌표, 즉 위도와 경도에서 따온 것이며, 그들이 브뤼셀에서 작업한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사무소를 개설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그들의 철학은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언제나 사고의 틀을 활짝 열어 놓는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완성된 작품 중 대표작은 벨기에 브루즈(Bruges)시에 건립된 그로닝 미술관(Groeningemuseum)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재기 발랄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은 현재 공사중인 LAMOT 문화컨벤션센터일 것이다. 기존의 맥주양조공장을 문화와 컨벤션을 위한 시설로 개조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기존 건물들의 입면 중 중앙의 하단부를 도려내어 유리 커튼월로 만들고 나머지 입면은 그대로 유지하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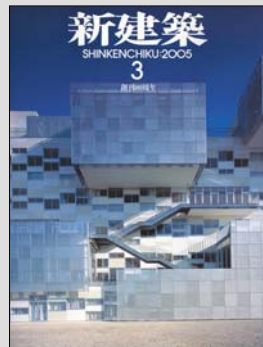


LAMOT 문화컨벤션센터

신건축

2005년 3월호

이번 호에 서는 안도 타다오의 주택 작품인 '인비저블 하우스 (Invisible House)', 쿠마 켄고의 'COCON



KARASUMA' 등이 소개되었다. 안도의 인비저블 하우스는 오랜만에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안도의 주택작품이다. 쿠마 켄고의 작품은 1930년대 교토의 역사적 오피스 건물을 상업복합시설로 리노베이션한 프로젝트로서 과거와 현재의 중첩을 이루고자 한 그의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T-HOUSE : 하세가와 이츠코(長谷川逸子) 건축계획공방

- 연속된 정방형에 의한 다양한 場

T-House는 녹음이 우거진 작은 언덕에 세워진 주택이다. 이 주택은 주택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정방형의 틀 안에 서로 다른 크기의 작은 정방형들이 모여 실내와 실외 공간을 형성하는 모습은 흡사 미스 반 데 로에의 1938년 작품 '정원이 딸린 집합주택(Group of Houses with Courtyard)'의 발전된 모습을 보는 듯 하다.

방문하는 손님이 많은 관계로 주택의 일반적인 기능에 더하여 거대한 응접 스페이스와 게스트



T-HOUSE

트 룸이 계획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기능을 서로 다른 상자로 만들어 적재해 나가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이 상자는 한 변의 길이가 각각 2, 3, 4, 5, 6m인 것 그리고 천정고가 2.5, 3, 3.5, 4, 4.5m인 5단계로 나누어 이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종류를 만들었다. 상자의 크기와 배열은 그 기능과의 절대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정된 생활 상호간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졌다. 평면형은 모든 것이 정방형이며, 닫혀진 방의 형태가 아닌 조금씩 엿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연속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외실(外室, 외부의 중정공간)과 서로 공간이 어우러지면서 다양한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Invisible House : 안도 타다오 건축연구소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후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를 맡음으로 인해 그간 보기 힘들었던 안도 타다오의 주택작품을 오랜만에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스페인의 트레뷰조 교외에 세워진 이 주택은 부지만 3ha에 달하며 건물의 연면적이 400여평에 이르는 초대형 주택이다(그가 작업해 온 작은 미술관과 맞먹는 크기이다). 주택의 구상단계부터 건축주와 함께 의논해 가며 이루어진 이 주택의 설계에서는 안도에게 많은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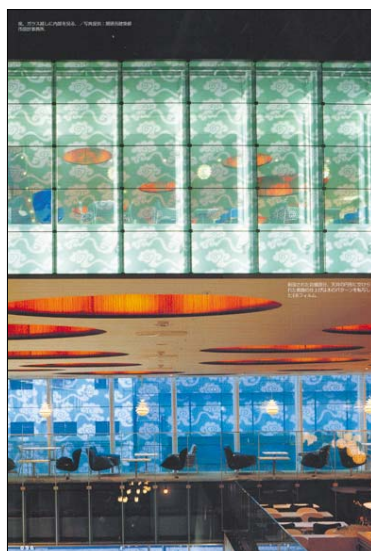


Invisible House

도가 부여된 프로젝트였다. 유일한 건축주의 요구사항은 부지 주변의 도로에서 뿐만 아니라 부지 내에서의 시선까지도 차단할 수 있는 완벽한 프라이버시의 확보였다. 이와 같은 건축주의 요구에 그간의 다른 프로젝트에서 보여주었던 안도는 주택을 땅속에 묻어 '보이지 않는 주택'을 만들기로 하였으며, 단순한 평면과 절제된 디자인 속에서 빛과 내외부 공간의 교차를 통한 다양한 공간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안도의 전형적인 공간구성을 유감없이 펼쳐보였다.

COCON KARASUMA : 쿠마 켄고(隈研 畷)건축도시설계사무소

1938년 교토의 중심, 商社인 丸紅의 전신인 丸紅呉服店이 빌딩을 세웠다. 8층 규모의 이 건물은 연면적 2만 m²의 상당한 RC조 건물로서 당시 교토 최대의 건축물로도 일컬어졌다. 그 설계는 니켄셋케이의 전신인 長谷部竹腰事務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역사적 건축물을 상품판매시설, 식음시설, 영화관, 오피스를 아우르는 복합 상업건물로 리노베이션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였다. 이 건물이 세워진 곳은 교토의 중심가로 은행과 오피스건물들이 들어서있어 역사적 도시인 교토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시간의 그림자를 찾기 어려운 곳이었다. 쿠마켄고는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역사적 깊이를 되살리고 싶어 했



COCON KARASUMA

다. 시간의 중첩을 표현하고 싶었던 쿠마는 건물의 입면과 내부의 전면적인 변경을 택하지 않고 새로운 것과 옛것을 혼재시킴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비록 건물의 측벽에 아트리움이 새로이 신축되었지만 기존 건물의 입면을 바꾼 부분은 1층과 2층 전면부에 불과하다.

건물 전면의 저층부 입면개수는 유리 패널에 일본의 고전문양인 '天平等雲'의 문양을 프린트한 반투명의 커튼월을 기존 입면에 덧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상업건축으로서의 팬시한 디자인과 교토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고전적인 이미지 그리고 새로운 것(유리커튼월)과 오래된 것(기존 건물의 입면)의 중첩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시도이다. 이와 같이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모습은 내부에서도 나타나는데, 건물에 천정반자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건물의 보들을 그대로 노출시킨 채 새로이 첨가된 설비들이 이와 함께 어우러지도록 설계하였다. 노출된 기존 건물의 보는 보의 양단부가 경사져있으며, 보의 모서리가 45도로 잘려진 형태로, 1930년대 건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바닥마감 또한 70년 전에 시공된 패킷플로어를 세심하게 보수하여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 이 패킷 플로어의 재료는 南洋産 이페材로서, 이와 같은 고가의 재료가 70년전에 오피스 건물 전 층의 바닥에 시공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기고 싶었다고 한다. 시공의 용이성에 있어서도, 공사비에 있어서도 바닥재를 전면 교체하는 것에 비해 불리했던 기존 바닥의 정교한 보수를 택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신축된 아트리움의 바닥 마감도 기존건물의 바닥패턴을 그대로 이어 받아 동일한 모습으로 처리하였다. 역사적으로나 건축적으로나 그 가치를 잘 인정받지 못하는 1930년대의 오피스 건물을 시대의 유행에 민감한 상업건물로 리노베이션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깊이를 간직하고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F Gallery : 키타야마 코지로(北山孝二郎)+K 계획사무소

건물이 위치한 川越은 '작은 에도'라는 별명



F Gallery

으로 일본 관동 지방 일원에 잘 알려진 마을이다. 메이지기의 대화재로 마을이 불타버린 후 마을이 재생되었고, 현재도 일본의 전통적인 도시형 상점주거형태인 '마치야'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마치야는 도로에 면한 부분은 얼마 되지 않지만 도로 안쪽으로 상당히 긴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중간에 중정을 두고 도로측에는 상점이, 중정의 안쪽에는 주거가 배치된 형식이다. 건물이 들어선 곳은 기존 건물이 없어진 상황에서 좁고 긴 대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여기에 갤러리와 상점을 만들고 싶다는 건축주의 의뢰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역사적 가로경관이 중요시되는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가로 경관과의 조화가 프로젝트의 주안점이 되었으며, 마을 유지들과의 몇 차례 논의 끝에 가로 경관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들을 수용하여 설계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정해진



마치야

가이드라인은 지붕의 구배 및 도로에 면한 입면의 벽면선을 주변건물들과 통일시키는 것과 마치야의 주거형식을 유지하고, 노지(路地, 좁은 골목길의 형태)를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재료를 현대적인 것을 쓰기로 한 관계로 입면의 지붕은 유리패널을 경사지게 부착하여 인접건물과의 지붕선의 연속을 유지하였으며, 마치야 입면에 주로 나타나는 격자창의 형태를 격자형 철망을 통해 추상화시켜 표현하였다. 또한 좁은 골목길을 대지의 끝까지 관통시켜 상점들이 이 길을 면하게 배치시켜 옛 마치야의 구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완성된 건물은 현대 도시 상점가의 세련된 모습과 옛 도시 상점가의 모습들이 중첩되고 어우러진 공간으로 나타났다. (번역 / 강상훈)

The Architectural Review

2005년 3월호

1982년부터 AR지의 편집장이었던 Peter Davey가 사임하면서 지난 25년간 건축계가 보여준 다양한 양상과 이를 담은 AR지의 변화들을 총정리하고 있다.



Davey가 회고하는 지난 25년

잡지의 분야와 종류를 망라하고 한 명의 편집장에 의해 25년의 세월동안 이끌어져 온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사반세기 전 AR지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Davey는 사회학이나 다양한 시각매체로 확대되던 잡지의 영역을 다시 건축과 그 인접분야로 초점을 맞추으로써, 그리고 전세계로 게재대상과 판매 시장을 넓힘으로써 난관을 타파했다. 20세기 후반에 대한 Davey의 비평과 아울러, 당시 AR지에 게재되었던 건축가와 비평가의 글들을 부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하이모더니즘의 종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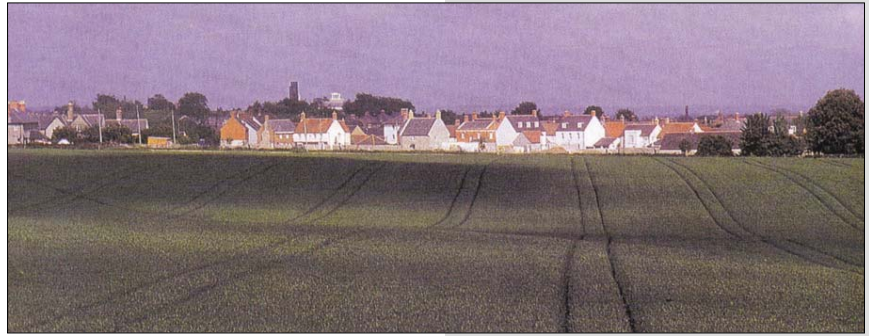
1980년대 초반은 전후시기 서구사회가 제시 하였던 사회적, 건축적 이상들의 한계가 드러나던 시기였다. CIAM과 아테네 헌장이 제안한 기능의 분리는 개발업자들에게 악용되었고, 관료주의와 거대기업이 건축과 도시를 좌우했으며, 질보다는 정량적인 평가만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Team X는 도시계획에 다시 인간적인 가치들을 도입했고, van Eyck는 추상적 공간이 아닌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등 모더니즘을 '인간화' 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Kenneth Frampton에 의해 대

표적으로 주창되었던 지역주의는 이러한 움직임 중 가장 두드러졌던 것으로, 1980년대 초 Edward Cullinan 등 Romantic Pragmatists 로 명명된 건축가들의 작품은 키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채 전통건축과 모더니즘을 성공적으로 연계하였으며,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제정된 Aga Khan상은 이슬람권의 지역주의 건축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천편일률적인 모더니즘 건축에 정반대의 입장에서 맞선 부류는 하이테크 건축이었다. 주위 도시맥락을 무시한 폼피두센터가 파리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하이테크 건축 역시 도시환경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인식되게 되었다.

고전건축의 요소들을 다시 장식적으로 차용한 포스트모던 고전주의는 이를 통해 건축을 더욱 풍부하고 인간적으로 만들고자 하였고, 건축을 공간이나 형태가 아닌 의사소통수단으로 이해하였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사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해소하지 못한 채 한때의 양식적 유행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1980년대에는 찰스 황태자의 지원에 힘입어 엄격한 고전주의의 부활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가 설계한 Poundbury의 주택단지는 비록 양식 자체는 우스꽝스럽지만, 주호 후정의 영역을 넓히는 등 배치방식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계획의 딜레마

1980년대 베를린에서 수행된 IBA (Internationales Bau Ausstellung)는 도시계획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실험이었다. 두 영



Poundbury의 주택단지

역으로 나뉘어 각각 J.P. Kleihues와 H.-W. Hamer에 의해 이끌어졌는데, 신건축 지역을 담당한 Kleihues는 밀집지역 내 도시흐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주택, 학교 등 프로그램들을 삽입하였으며 지명현상설계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미국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 의해 진행된 Tegel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Rationalist로 분류된 건축가들에 의해 추진된 결과 엄격한 질서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비인간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 또한 베를린의 독특한 지형과 정치적 상황은 베를린 도시계획의 실험이 보편성을 갖지 못한 주요원인이었다. 파리의 경우 1980년대 중반 미테랑 대통령에 의해 도시 곳곳에 새로운 명소가 될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나, 도시 내에서 가장 공격적인 건물이 돼버린 Chemetov & Huidobro의 재무부 청사, 도서관 기능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Dominique Perrault의 파리국립도서관 등 내용보다 규모가 앞서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반면 바르셀로나의 도시재개발은 무척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데, 1992년 올림픽

을 대비해 사회주의 정부 아래 Oriol Bohigas에 의해 진행된 계획은 각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원과 광장을 건설하였다. 베를린이나 파리과 같은 드라마틱한 결과는 없었지만 Cerda 계획체계 내의 낙후지역이나 미완성부분을 공공영역으로 매워나감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한 도시재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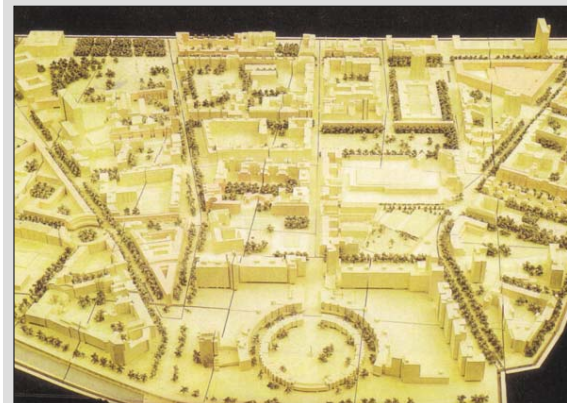
다양하고 극단적인 형태 실험

도시내에서 기념비적인 위상을 점유하고, 건축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 도구가 독특한 건축형태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독특한 형태의 건축이 더욱 부각되었는데, 이는 모더니즘 건축의 미밋함에 대한 해소책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효과이기도 했다. 특히 전 산업계에 걸쳐 브랜드 구축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가 역시 특정한 스타일의 브랜드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논리가 항상 새로운



Edward Cullinan



IBA (Internationales Bau Ausstellung)

브랜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Future Systems의 Birmingham Selfridges 상점과 같이 주위 환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휴먼스케일에서 벗어난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베를린의 네덜란드 대사관이나 시애틀을 도서관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Rem Koolhaas 역시 품질에 대한 관심보다는 시장논리가 건축의 내용이 되면서 억압적이고 차가우며 이미지에 치우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의 작품은 특히 동시대의 네덜란드 건축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작업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적 체험의 복합성과 다양성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

이 땅에서 우리와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정주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에너지의 보존과 재료의 절약은 주요 과제다. BedZED의 런던 Eco-Housing과 같이 태양에너지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에서 배워야 할 것이며, 자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기술은 이미 대부분 확립되어 있으므로 이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상상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기타

98세까지 활동하다가 세상을 뜬 Philip Johnson의 부고기사, Christo와 Jean-Claude의 뉴욕 센트럴파크 설치작품 소식이 게재되어

있으며, Tadao Ando, Ken Yeang, Norman Foster, Charles Jencks, Kenneth Frampton 등 건축가와 비평가들이 지난 25년간 건축계의 이슈들을 정리하며, 향후 25년간 건축계를 이끌 어갈 이슈들을 제안한다. (번역 / 최원준)



BedZED의 런던 Eco-Housing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중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3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6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시지역건축사회/(041)532-9200 · 서산시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시지역건축사회/(041)736-2117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 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